

# 400년의 류큐·오키나와와 동중국해 기지문제의 현재

개변 맥코맥 호주국립대학 명예교수

동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동중국해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 글은 오키나와(沖繩)를 중심으로 40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키나와 문제’는 미·일 정부가 미 해병대용 새로운 시설을 오키나와 본도 북부에 건설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는데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배후에는 과거의 압박과 착취가 깊게 각인된 역사가 숨어 있다. 14세기 후반부터 류큐(琉球)는 사실상 독립해 있었으나, 17세기 류큐가 정복당하면서 류큐 국왕은 에도(江戸) 막부와 베이징의 황제를 동시에 섬기게 되었다. 19세기 초, 일본 메이지(明治) 정부는 류큐 왕국을 폐하여 류큐 번이라 하고, 메이지 정부는 신정권이 안정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류큐를 일본에 병합하기로 결의했다. 뒤늦게 일본의 일부가 된 오키나와 주민은 ‘일본인’이 되기 위해 오키나와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오키나와·류큐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받았다.

1945년 괴멸적인 오키나와전 이후 1947년 5월, 천황이 오키나와를 본토에서 떼어내어 장기간 미군 점령을 희망했다. 일본에서 분할되어 미군 사정권 아래에서 ‘전시국가’가 된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반환되면 미군에서 해방되고 일본 헌법 아래 비군사적이며 평화로운 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 복귀를 희망했다. 결국 1972년 시정권이 미군에서 일본으로 이관되었으나 일본 정부는 거액의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는 한편, 미군기지 반환을 바라지 않았다. ‘반환’으로부터 약 20년 후, 냉전체제는 종결되었으나 기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더 나아가 미·일 정부는 기지를 더욱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오키나와 주민을 또 다시 크게 낙담하게 만들었다. 오키나와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헤노코(辺野古) 기지 반대운동을 통해 폭력과 강제로 점철된 40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로운 섬을 회복하는 시민의 이야기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주제어 오키나와, 동중국해, 류큐 왕국, 기지문제, 헤코노 기지 반대운동

## I. 들어가며

비군사적이고 협조적인 동아시아 발전을 위해서는 동중국해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로 서로 불신감을 키워가고 군사화를 추진하고 있어 대립이 더욱 심화해가는 추세다. 역사를 장기

번역: 다무라 후미노리/서울대학교 지리학과 석사

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현재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여기서는 오키나와(沖繩)를 중심으로 40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Dower and McCormack, 2014).

14세기 후반에 통일국가로 대두한 류큐(琉球) 왕국은 규슈(九州) 남쪽에서 타이완 사이에 뻗어 있는 오스미(大隅), 아마미(奄美), 오키나와, 사키시마(先島) 제도를 재빠르게 지배하에 두었다. 류큐 왕국은 거의 500년간, 명나라에서 청나라 말기까지 중국의 책봉국으로서 조공의 예를 거르는 법이 없었고, 약 200년간 내정적 자립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독립은 1609년부터 1874년까지 규슈 남부 사쓰마(薩摩)가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끝나게 된다. 그렇지만 사쓰마의 지배는 간접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근대 여명기까지 류큐 왕국은 표면상으로는 독립국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처럼 류큐는 중국과 일본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독립국으로서 미국(1854), 프랑스(1855), 네덜란드(1859) 등과 통상협력을 맺고 있었다. 1879년, 류큐 왕국은 완전히 폐지되어 메이지 일본에 흡수되었다.

그 후 오키나와는 근대의 모순이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특이한 길을 걷게 된다. 근대 일본에서 오키나와 현(1879~1945)은 전쟁 말기의 끔직한 지상전 현장이 되어 엄청난 희생자와 잣더미의 참상을 경험했다. 전후 미국 점령군의 시정에 놓이게 되고(1945~1972), 이후 오키나와 현이란 이름으로 다시 일본의 일부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일 정부가 지배하는 반식민지나 마찬가지로였으며, 특히 압도적인 미국의 존재가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일본 내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이나 방침에서 오키나와 이상으로 소외된 지역은 없다. 2015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간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 신기지 문제를 둘러싼 집중협회가 있었는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게 한 달이나 논의의 기회를 요구하는 것은 오키나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오키나와 문제’는 미·일 정부가 미 해병대용 새로운 시설을 오키나와 본도 북부에 건설할 것을 완강히 요구하는 데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배후에는 과거의 압박과 착취가 깊게 각인된 역사가 숨어 있다.

주변국에 편입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는 종속과 착취 속에서 독자적인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해 온 류큐·오키나와에는 오랜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독특한 시점을 제공하는 민요가 있다. 그 중 하나인 〈시대의 흐름〉이라는 노래는 오키나와의 변화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다.

당(중국)나라 시대에서 야마토(일본) 시대로, 야마토 시대에서 미국 시대로, 미국 시대에서 야마토 시대로, 어지럽게 변화하는 오키나와<sup>1</sup>

동중국해를 끼고 오랫동안 아시아와 교류해 온 류큐의 역사와 또 최근의 긴장감까지도 고려하면서 어느 오키나와 시민은 “야마토의 시대에서 드디어 오키나와의 시대가 온다”며 오키나와 중심의 동아시아, 동중국해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大山朝常, 1997: 178).

## II. 조공국 / 극장국가

중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안정된 전근대 시대는 주변 국가들이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고, 대신 중국제국은 교역의 특권을 부여해 안전을 보장했다. 조공국의 새로운 국왕은 중국의 책봉사에게 다시 충성을 맹세하고 외교와 교역의 사절단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베이징에 보냈다. 정식으로는 1429년부터 류큐 국왕이라고 칭했으나, 14세기 후반부터 류큐는 사실상 독립해 있었다. 류큐의 조공사절은 1372년 당시 국왕에게 정식으로 책봉을 받고 있었다. 1866년까지의 약 500년간 중화제국의 사절은 푸저우(福州)에서 동중국해를 24회 건넜다(Suganuma, 2000: 46, 70). 명대의 300년간 베이징에서 책봉사절이 17회 파견되었지만, 16회는 류큐를 향했고 답례로 류큐는 384회 조공사절을 보냈다.<sup>2</sup> 또 청대(1622~1875)에는 122회의 조공사절을 파견했다(Suganuma, 2000: 47). 류큐 사절의 빈번한 파견은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류큐보다 사절단 수가 많은 것은 대륙과 이어진 조선뿐이었다. 명대에 류큐는 중국에 171회 사절

<sup>1</sup> 카테카루 린쇼(嘉手苺林昌, 1920-1999).

<sup>2</sup> Suganuma, 2000: 47(Qing figure from David C. Kang, *East Asia Before the West: Five Centuries of Trade and Tribut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0, p. 435)

을 보냈는데 그것은 안남의 89회 사절단 파견에 비해 거의 배가 되는 것이다(高良倉吉, 1998: 60).

새로운 왕국의 책봉이 거행될 때 중화제국의 사절단 300~800명은 슈리에서 4~8개월이나 대접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류큐는 답례로 더 많은 사절단을 파견했다. 류큐에서 매해 진상하는 말 900마리는 제국이 별도로 배를 보낼 정도로 중요시했다(高良倉吉, 1998: 63). 아마 류큐 왕국의 직접적인 지시로 류큐 배가 중국 동해안의 푸저우를 넘어 북으로는 일본과 조선, 남으로는 말라카(말레이시아), 샴(타이), 안남(베트남), 자바와 수마트라(인도네시아)까지 빈번하게 드나들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류큐 음악이나 무용 등의 예능, 칠기, 염직물, 직물, 도기 등의 공예품이 아시아에 넓게 보급되었다.

이 시기 류큐의 세계관이나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엿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슈리(首里) 성 정전에 매달려 있던 종에 새겨진 글이다. 1458년 쇼타이큐(尚泰久) 왕 시대에 주조된 청동 종은 만국진량(萬國津梁)의 종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당시 세계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高良倉吉, 1998: 120-121).<sup>3</sup>

류큐국은 남해의 승지에 위치하여  
삼한(三韓=조선)의 빼어남을 한데 모으고,  
대명(大明=명나라)을 광대뼈와 잇몸으로 삼고,  
일역(日域=왜)을 입술과 이로 삼는다.  
류큐는 이 둘의 중간에서 솟아오른 봉래섬이다.  
주춤(선박)으로 만국의 진량(가교)을 삼으니,  
이국의 기이한 산물과 보배가 온 나라에 가득하다.

어떤 학자는 류큐가 중화의 책봉체제 속에서 왕래하고 교류를 이어온 긴 역사 속에서 500년 이상 류큐와 중국 사이에 영토를 둘러싼 싸움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다(Suganuma, 2000: 70).

그러나 16세기 말, 일본의 군웅할거의 전란 속에서 전국을 제압하고 천하를 손에 넣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등장은 동아시아의 평온에 교란을 가

<sup>3</sup> 현재 우라소에(浦添) 시 미술관 소장.

져온다. 히데요시는 명을 대신하여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고 대군을 이끌고 진군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은 완전히 황폐화하고 일본과 명도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는 또한 명이 쇠퇴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히데요시는 조선 출병 당시 류큐 왕국(당시 인구는 약 11만 명<sup>4</sup>)에도 병사 1만 4,000명과 1년 분의 식량 공출을 요청했고, 류큐는 반 정도인 7,000명을 충당했다. 사쓰마의 시마즈(島津)는 류큐의 배를 구조한 후 여러 번 재촉했는데도 사은사를 보내지 않았던 일, 사쓰마 도장이 찍히지 않은 배의 단속이 불충분하다는 구실 등으로 1609년 오스미, 아마미에서 남하 침공하여 슈리 성을 함락시켰다. 3,000명의 화승총을 가진 무사들은 대부분 전란 시대를 살아남은 전쟁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어서 4,000명의 류큐 군은 쉽게 정복당했다고 한다.

쇼네이(尚寧) 국왕은 추종자 100명과 함께 사쓰마(가고시마)에 연행되고 귀국이 허락된 것은 2년 후였다. 유명한 류큐 귀족으로 왕국군의 지휘자였던 자나 리잔(謝名利山, 1549~1611)은(Smits, 1999: 16-17) 신군주인 시마즈에게 충성서약을 거절했기 때문에 처형당했다(寺島夷郎, 2015: 33-39, 36). 또 자나는 류큐 왕국을 구하려고 명나라에 지원요청을 획책했다고 전해진다(Smits, 1999: 17). 에도 막부는 사쓰마가 류큐를 정복한 후, 사쓰마가 아마미오시마를 포함한 류큐 왕국 북부의 섬들을 사쓰마 번의 직할지로 삼는 것을 인정했다. 류큐 왕국의 지배권은 3,450만 km<sup>2</sup>에서 2,230만km<sup>2</sup>로 감소했다(伊波普猷, 1926).

1609년 이후에도 류큐 왕국과 왕궁은 존속되었으며, 류큐 국왕은 사쓰마 번을 통해 에도 막부와 베이징 황제를 동시에 섬기게 되었다. 에도에 경하사와 사은사를 파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때는 중국풍의 의복을 입고 일본어가 아닌 류큐 말을 사용하는 등, 오로지 중국 책봉국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도록 시달받았다(Smits, 1999: 27-28). 이종의 복속을 강요당하자 슈리 성이라는 극장에서 오키나와의 관리들은 진정한 지배자의 실상을 숨기도록 제작된 극을 연기는 배우가 되었다.

주목할 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근대 일본(1609)과 근대 일본(1872-1879)이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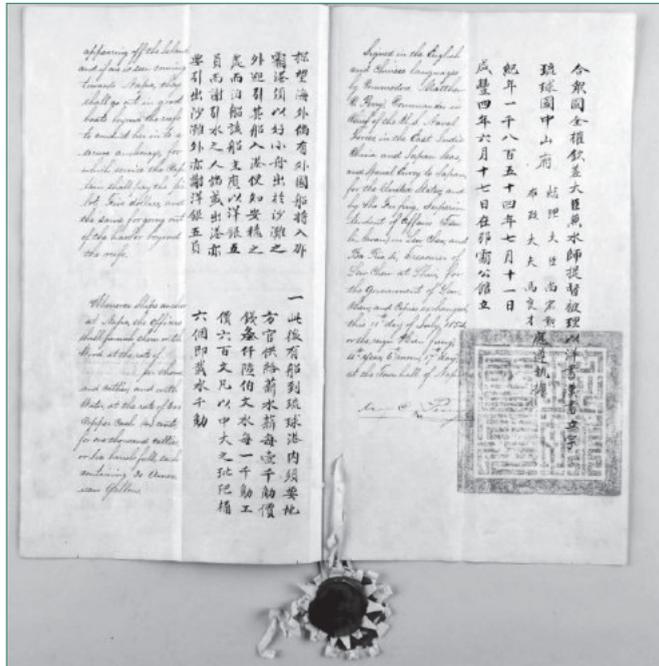
<sup>4</sup> 1632년 인구는 10만 8,958명으로 추산된다(『朝日新聞』 2010/4/16).

두 무력을 사용해 이들 섬을 강제로 병합했다는 것이다(McCormack and Norimatsu, 2012: chapter 1). 1609년에는 시마즈가 류큐 정벌로, 1872~1879년에는 메이지 관료가 류큐 처분으로 부른 것만 보더라도 명백하다. 또 하나는, 세계의 패권국인 중국이 사쓰마와 에도 막부가 무력으로 류큐를 손에 넣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 측은 생각하고 정벌과 지배의 실태를 내밀히 유지하려고 획책했던 점이다. 즉, 명목상 독립국으로서의 체재를 유지시켜 류큐 왕국에게 자립국가라는 의식을 연출해온 것이다. 사쓰마(가고시마)에게는 류큐의 설탕과 교역이 가져오는 이익이 막대했기 때문에 류큐의 조공사절과 교역을 이면에서 지배했다. 야마토(大和) 시대 1기의 특징은 폭력과 위장이었다.

### III. 격동의 19세기

19세기 중반, 독특한 류큐 극장국가의 막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단기간이었지만 류큐에 밝은 미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었다. 19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동아시아 진출은 류큐의 입장에서 보면 재난이면서 동시에 호기이기도 했다. 프랑스(1844), 영국(1846), 그리고 미국(1850년대)의 배가 식료, 물, 석탄,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기지항을 찾아 류큐에 나타났다. 일본은 에도에서 메이지로 전환되는 막부 말기 과도기인 대혼란기에 놓여 있었기에 류큐는 자력으로 대처하도록 방치되었다. 왕궁의 관리들은 독립왕국으로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와 교섭하고 근대적 ‘개국’ 조약을 맺었다(西里喜行, 2010: 74). 에도 막부는 서구의 요구에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류큐의 해명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1854년 류큐 왕궁에서는 류큐를 방문한 페리(Matthew Calbraith Perry) 제독에게 중국과 일본에 양속된 류큐의 지위를 비롯한 지금의 상태가 그대로 존속되길 바란다는 의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협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두 나라에 양속된 애매한 지위는 탐욕적이며 확장주의적, 군사주의적인 신세계 질서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1867년 근대국민국가로 출발한 메이지 정부의 엘리트들은 어디까지나 근대법에 기초한 세계관을 고집하며, 독립국의 주권은 절대적이며 분



출처: 『琉球新報』 2014/2/4. <http://ryukyushimpo.jp/news/storyid-238345-storytopic-1.html> (최종 검색일: 2014. 2. 6)

**그림 1** 1854년 류큐국이 미국과 맺은 류미수호조약 원본(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할할 수 없기에 국경은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1853년 5월 26일 상하이에서 우라가(浦賀, 가나가와 현)로 향하는 도중 페리 제독의 흑선은 부하 200명과 함께 나하(那覇)에 입항했다. 그들은 그 후 다섯 차례 더 입항해 총 85일간을 머물렀고, 7월 11일 마침내 류큐-미국 수호조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워싱턴에서 다음해 비준된 류미수호조약은 중국어판과 영어판으로 되어 있다. 같은 조약이 프랑스(1855), 네덜란드(1859)와도 체결되었다.

이러한 조약 교섭과 체결은 류큐가 독립국이었음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견해를 용인할 수 없었다. 1872년 메이지 정부는 류큐 왕국을 폐하여 류큐 번이라 하고, 메이지 천왕은 류큐 국왕 쇼타이를 번왕(호족)으로 책봉했다.

1872년 일본 국기가 오키나와 본도에 처음으로 게양되었다. 다음해인 1873년

구메(久米), 이시가키(石垣), 이리오모테(西表), 요나쿠니(與那國)의 각 섬에서도 일본 국기가 게양되었다. 민요에서 말하는 ‘야마토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메이지 정부는 신정권이 안정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류큐를 일본에 병합하기로 결의했다. 완전한 병합을 위해 위협, 정벌, 강제, 복종으로 이어지는 긴 절차가 시작되었다. 1875년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 내무대신을 류큐에 파견해 청나라와의 통상관계를 금지시키고 메이지 연호 채용, 국왕의 복종과 순종의 뜻을 보여 주기 위한 상경을 요구했다(실제로 청나라로부터의 마지막 사절은 1866년 신류큐 국왕 쇼타이의 책봉을 공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의 거듭되는 설득과 요청에 맞서 류큐 측은, 아버지는 일본이고, 어머니는 중국인 류큐는 양친이 있는 자식이므로 한쪽에만 효도하고 다른 한쪽에는 효도하지 않는 것은 유교의 가르침에 반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중국과의 연을 유지하려는 ‘류큐구국운동’은 완고한 보수파가 점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만국공법(국제법)에 과거 2국 또는 복수 국가에 동시에 복속했던 사례를 뒤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러시아에 복속되었던 폴란드의 전례를 찾아냈다(西里喜行, 1987: 35-36). 하지만 국가의 주권은 한 나라에 한정되며 분할할 수 없다는 베스트팔렌의 원칙은 세계적으로 그 정신도, 실태도 점점 더 견고한 철칙이 되어가고 있었다. 류큐의 ‘구국’운동 활동가가 중국 복속의 존속을 간절히 바라며, 일본이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탄원해도 메이지 정부에 그러한 특례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당시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조선 등 도처에서 중화제국의 ‘세계질서’는 공격받고 있었고, 태평천국의 난 등 내란으로 불안정했던 정국이 겨우 회복 중이던 청나라에게 류큐는 바다 저쪽에 있는 작은 왕국에 지나지 않았다.<sup>5</sup>

나하, 도쿄, 베이징, 푸저우 등에서 수년간 외교 방안을 획책한 후 마쓰다 미치유키 처분관은 1879년 경찰관 160명, 내무관료 41명, 병사 400명을 동반해 결정적인 세 번째 류큐 입성을 하게 된다. 슈리 성에 들어가더니 폐번치현 등의 정부 방침을 전달하고, 쇼타이 국왕과 그의 가족을 슈리 성에서 내쫓고 상경시켰다(西里喜行, 1987: 36). 류큐 왕국은 1872년에 류큐 번이 되었고, 1879년에는 오키

<sup>5</sup> Li Honggang, 西里喜行(2010: 99) 재인용.

나와 현이 되었다. 구왕궁에 충성한다고 의심되는 사족 100여 명은 고문을 받고 그 후 처형, 참수 또는 좌천되었지만(西里喜行, 1987: 50), 정부에 충실하다고 신뢰 받은 관리들은 발탁되어 격려를 받았다(Tsuyoshi, 2015).

돌이켜보면 류큐구국운동이 해외나 류큐 내부에서조차도 충분히 응원받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근대적인 언어로 기본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류큐인은 신시대의 여명을 앞두고 그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일치단결해 저항하기는커녕 그저 방관하고 있을 뿐이었다. 류큐, 도쿄, 푸저우, 베이징으로 분산된 동료들 간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우에키 에모리(植木枝盛, 1857~1892)나 곽송도(郭嵩燾, 1818~1891)<sup>6</sup>와 같은 당시 진보적 인물들<sup>7</sup>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전통적 책봉, 조공제도가 절대적 존재라고 믿고 류큐 왕국의 구원을 청나라에 요청했다는 데에 ‘역사적 한계’가 있었다(西里喜行, 2010: 120).

270년 전, 전근대의 사쓰마(에도 막부)에게 무력으로 실질적 병합을 당했을 때, 명은 이미 쇠퇴기에 있었다. 그리고 근대 들어 류큐 처분으로 명실상부하게 일본에 병합되었을 때 청나라는 왕조 말기였다. 소국의 역사에 대국의 흥망이 비춰지고 있다.

#### IV. 청·일·오키나와 분할안

뒤늦게 일본의 일부가 된 오키나와 주민은 ‘일본인’이 되기 위해 오키나와라는 아이덴티티를 부정하고, 오키나와 · 류큐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버리도록 강요당했다. 1609년부터 1879년 사이에 류큐왕국극장은 일본 종속을 숨겨야만 했

<sup>6</sup> 1880년대 일본에서 ‘자유와 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에키(Ueki)와 1870년대 중국의 ‘자강운동’의 공식적인 대표자 구오 송타오(Guo Songtao)가 모두 류큐 · 오키나와의 독립을 지지했다.

<sup>7</sup> 하와이 왕인 칼라카우아(Kalakaua)가 1880년 혹은 1881년에 중국을 방문하여 류큐 · 오키나와에 관한 청국과 일본의 협정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아시아의 통합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압력에 저항하고 아시아의 부흥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西里喜行, 2010: 120).

지만, ‘야마토 시대’에서는 일본 천황과 황실의 신화를 모시기 위해 오키나와의 아이덴티티를 일본과 동일한 것처럼 바꿔야만 했다.

구체제 처분과 신행정조직의 재편이 일단락된 후 메이지 정부는 청나라에 신체제의 동의를 얻고자 했다. 1880~1881년에 걸쳐 청·일 양국은 오키나와의 분할안을 협의했다. 첫 번째 안은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미야코(宮古), 야에야마(八重山) 제도를 중국에 할양하고 그 대신 청나라로부터 최혜국 우대를 받는다. 두 번째는 사쓰난 제도에서 사키시마 제도까지를 세 개로 분할해 최남단부를 청나라에 할양하고 북부는 일본에게, 오키나와 본도는 류큐 왕국에 남기는 안이었다(波平恒男, 2014: 312-323; 西里喜行, 2010: 107-108; 1990: 76-79). 류큐의 섬들은 일본 안의 지방 ‘공동체’라기보다 일본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특가상품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것이다. 1880년 10월 청·일 양국이 류큐 3분할안에 합의하고 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10일 이내에 서명을 하고 3개월 후에 축하회를 개최했으며,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미야코, 야에지마 열도가 청나라령이 되었음을 선언하는 준비가 갖추어졌다(波平恒男, 2014: 315). 그런데 당초 3분할안에 찬성했던 청나라는 나중에 생각을 바꾼다(Smits, 1999: 146-147). 베이징에 있는 류큐 분할 반대파들은 어떻게 해서든 류큐 왕국 분할을 막아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청나라의 리홍장(李鴻章)은 그들 섬이 협소하고 구릉이 많으며 황폐한 토지여서 입수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이다(波平恒男, 2014: 319).

그 후 단계적으로 섬 분할에 대한 교섭이 이어졌다. 청국은 분할병합을 그만두고 어떤 형태로든 청나라와 오키나와가 관계를 수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당면한 보다 ‘시급한 사태’를 앞두고 류큐 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교섭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류큐에서의 일본 주권을 실질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인한 것은 아니었다(Smits, 1999: 146). 청나라는 국제법과 영토확장주의의 ‘근대적’ 사고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책봉국으로서 조공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국의 체면과 전통에 의거한 행동이었다(波平恒男, 2014: 320-321). 1881년의 조약은 결국 조인에 이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섬들의 복속이 명확하게 매듭지어진 것은 그로부터 15년 후,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중국에 주권을 요구한 시점이었다(植村秀明, 2012).

2012~2013년, 중국의 학자와 정부 관계자가 동중국해의 중·일 국경 문제는

‘미해결’ 과제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하자 일본은 격분했고 오키나와에서는 불안감이 커졌다. 중국의 이와 같은 견해는 논의할 필요도 없는 진실이다.<sup>8</sup> 1881년 교섭이 흐지부지되어 중·일에 양속해 있던 류큐 왕국의 분할 문제가 중단되었고, 결국 국경 문제가 미해결인 채 남겨진 것은 분명하다.

## V. 할양되고 버림받는 오키나와: 1945~1952년

메이지 국가에 편입된 오키나와는 문화,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집중적 동화정책이 전개되었다. 제2의 야마토 시대는 오키나와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였다. 류큐 국왕, 사쓰마 번주, 베이징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일본 천황으로 집중되었다.

오키나와를 근대일본국가로 철저하게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1945년 괴멸적인 오키나와전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 대참사는 물리적 대파괴와 함께 주민의 정신에도 깊은 상처를 남겼다. 메이지부터 60년이나 충성을 다해 봉공해온 천황에게 버림받은 것이다(『琉球新報』 2015/8/25). 1609년, 1879년의 강제 병합과 마찬가지로 오키나와를 일본에서 따돌리고 버리는 과정은 비정상적이었다. 미국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의 시작이다.

오키나와를 사석(捨石)으로 삼는다는 구상은 1945년 2월과 7월, 1947년 5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확실히 드러났다. 먼저 1945년 2월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치열해지고 패전의 기색이 짙어지자 전 수상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는 패전은 이미 필연적이라는 사태를 받아들여 ‘국체’수호를 위해 전쟁을 종결해야 한다고 천황에게 상주했다. 천황은 “다시 한 번 전과를 올리고 나서가 아니면 어렵다”고 대답한다. 결국 본토 방어와 국체수호를 위해 연합군의 본토 공격을 저지하는 방파제의 사석 역할이 오키나와에 할당되었다. 종전선언을 망설인 결과,

<sup>8</sup> 중국사회과학원 출신 장해평(Zhang Haipeng)과 리귀광(Li Guoqiang)은 『인민일보』에 “류큐에 관한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다.”라고 썼다(Le Monde reporters, *The Guardian*, 14 May 2013; Perlez, 2013).

약 1개월 후 오키나와전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1945년 7월 초 오키나와가 불에 타 폐허가 되고 인구의 4분의 1이 전사해 ‘국체’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였다. 천황은 대소평화교섭 특사로서, 고노에에게 대기를 명하고 고유 영토인 본토는 양보할 수 없지만 오키나와(오가사와라(小笠原), 가라후토(樺太, 사할린 포함)는 포기할 뜻이 있음을 전달한다.<sup>9</sup>

세 번째의 배신은 1947년 5월, 천황이 오키나와를 본토에서 떼어내 장기간 미군 점령을 희망한 것이다. 맥아더 장군에게 일본의 안전보장을 도모하고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는 “앵글로색슨을 대표하는 미국이 주도권을 쥔 필요”가 있기에 대외의 의제에 근거해 오키나와를 장기간 미군 점령 아래에 두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sup>10</sup> 맥아더는 이러한 천황의 말에 힘을 얻어 자신 있게 헌법에 의한 ‘평화국가’ 일본(본토)과 실질적 ‘전시국가’(오키나와) 일본을 분단했던 것이다. 천황의 말이 결정적이었던 ‘미국 시대’의 성격은 미군 우선 정책이기는 하지만, ‘25~50년, 혹은 그 이상’의 구상이 점점 길어졌다.

## VI. 일본 복귀가 아닌 오키나와 반환: 1972년

전후 얼마간 일본 본토의 ‘평화국가’와 오키나와의 ‘전시국가’는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 냉전체제의 쌍생아라고도 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로 1952년에 일본 본토, 1953년에 아마미 제도와 류큐 제도 북부, 1968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미국 점령이 종식되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본토 주변과 그 이남의 미국 점령은 1972년까지 지속되었다. 대부분의 오키나와 주민에게 점령은 아직까지도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sup>9</sup> 1945년 7월 26일 포츠담 선언도 같은 취지이며 일본의 주권은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규슈(九州)와 연합군이 결정하는 섬들로 한정된다고 했다.

<sup>10</sup> 1945년 5월 3일 신헌법 시행일로부터 3일 후의 천황 발언이다. 豊下橋彦, 1999; 進藤栄一, 1979: 45-50(히로히토(裕仁) 천황의 서한은 보좌관인 데라사키 히데나리(寺崎秀成)가 천황의 구술을 기록한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분할되어 미군사정권 아래에서 ‘전시국가’가 된 오키나와는 일본으로 반환되면, 미군으로부터 해방되고 일본 헌법 아래 비군사적이며 평화로운 섬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일본 복귀를 희망했다. 결국 1972년 시정권이 미군에서 일본으로 이관되고 류큐 시정부에서 오키나와 현청으로 일본 복귀는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새로운 ‘극장국가’의 개막이기도 했다. 17세기에 그랬던 것처럼 복귀 후의 오키나와에서도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었다.

오키나와 반환은 실제로 일본이 오키나와를 매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6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되는 거액의 비용을 미국에 지불하는 한편, 대단히 모순된 얘기지만 미군기지 반환을 바라지 않았다(McCormack and Norimatsu, 2012: 193-196). 이렇게 해서 미군은 가장 비옥한 농지였던 토지를 지금도 기지로 계속 사용하면서 오키나와의 하늘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군 상당수를 오키나와에 확보해 두는 것을 전제로, 오키나와 주민이 진정으로 바라던 미군 없는 반환이 되지 않도록 거액의 보조금을 미국에 계속 지불했다. 미군이 오키나와 주둔을 계속하도록 ‘배려예산’이라거나 접수국 지원금이라고 불리는 재일미군주류경비 부담금을 호기롭게 지불한다. 오키나와의 군사부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밀약’으로 알려진 오키나와 반환 시의 비밀협정 내용은 미국의 인도차이나 전쟁 수행에 우선적 편의를 제공할 것, 또 유사시 필요하다면 핵무기 반입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반환은 전도 반환이 아니었기에 미군은 오키나와 기지를 기반으로 전쟁에 출동하는 자유를 계속 유지해 왔다. 일본 정부가 인도차이나 전쟁 지지와 핵무기 반입 용인을 공표했다면 어떤 정권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환협정의 어이없는 진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비밀의 장막을 걷어 올리려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했다.<sup>11</sup> 미·일 정부는 2009년까지 밀약은 없었다고 그 존재를 부정해 왔다. 오키나와 반환 교섭 시의 비밀외교는 기만, 은폐, 허위의 비민주적 구조를 키웠다. 평화로운 섬을 돌려달라는 오키나와의 민의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반환’은 또

<sup>11</sup> 자세한 내용과 출처는 McCormack and Norimatsu(2012) 참고.

하나의 ‘굴욕의 날’로 기억되었다.

1972년 이후의 오키나와는 일본 헌법 아래 평화주의와 지방자치권이 보장된 자립 자치단체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미군기지 내에는 일본의 주권이 미치지 않아 시정권은 부분적으로 반환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미일 안보협정이 오키나와에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초법규적으로 헌법은 부정되고 중요한 사안은 모두 일본 정부의 결정에 맡겨졌던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9년부터 2009년까지 밀약의 존재와 미·일 관계의 본질에 대해 공공연히 거짓말을 해왔다. 공식 문서나 지방자치단체 정부는 17~18세기 아시아 무대에서 연출된 류큐 왕국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군사우선’ 정치를 오키나와에 강요하면서 헌법보다 미·일 동맹을, 시민적·민주주의적 원칙보다 군사를, 지역주민보다 국익을 우선하기 위해 오키나와의 반대파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반환은 사기와 허식, 매수와 거짓 위에서 성사되었다. ‘반환’으로 오키나와는 평화주의국가 일본으로 복귀했으나 그것은 미국의 군사식민지였던 오키나와를 일본과 미국, 두 나라의 식민지로 만들었을 뿐이다. 민요에는 이 ‘양속’을 잘 전달하는 가사가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

## VII. 냉전 후

‘반환’으로부터 약 20년 후, 냉전체제는 종결되고 가상의 적을 상정한 기지의 존재 이유는 없어졌다. 하지만 기지는 여전히 남아 있고, 더 나아가 미·일 정부는 기지를 더욱 증강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오키나와 주민을 또 다시 크게 낙담하게 만들었다.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간 전쟁 때 미국은 일본의 자위대가 더욱 커다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일본 정부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듯이 전력을 쏟았다. 동맹심화가 의미하는 것은 일본의 미국 종속을 심화하고 강화해 오키나와의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냉전 후 서태평양에서 중앙아시아, 중근동, 아프리카까지 확대되는 미군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오키나와는 군사상의 중요 거점이 되었다. 오키나와의 존재

이유는 전쟁 준비와 수행의 베이스캠프였다. 일본 헌법이 아닌 미·일 안보가 오키나와의 중요한 존립 기반이 되었다. 미 국방성이 과거의 천황으로 바뀐 것이다.

이러한 사태에 오키나와 주민의 분노가 점점 커져 가던 1995년, 12살 소녀가 세 명의 미군 병사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이 사건으로 기지부담 경감이라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만책이 강구되었다. 1972년의 반환은 기지 존속을 의미했지만, 1996년의 기지 정리 축소는 대체시설 건설이었다.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대신해 헬리포트 건설계획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관서공항과 같은 대규모 시설을 헬리포트라 하고, 기지 확대 계획을 기지 정리 축소라고 강변하는 양상이었다. 미국은 이 시점에서 후텐마 기지에서의 철수를 고려했으나 일본 정부는 오로지 미군의 주류 지속을 고집했다(『沖繩タイムス』 2014/9/13).

오키나와에 대한 지배와 조작은 다음 단계로 진입했다. 2006년 재일미군재편 합의는 2009년에 정식으로 괄 조약이라는 형태로 조인되고 일본 정부는 앞으로 계속 이 합의에 묶이게 되었다. 속임수 위에 속임수가 겹쳐졌다. 일본은 ‘후텐마 대체시설’을 나고(名護) 시에 건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8,000명과 그 가족 9,000명을 괄으로 이전시키는 비용, 약 61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겠다고 발표했다. 나중에 위키리스크가 발표한 2008년 미 대사관의 공문서에 따르면 해병대 8,000명과 가족 9,000명이라는 숫자는 정치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풀렸음이 판명되었다. 당시 오키나와의 해병대는 1만 3,000명, 그 가족은 9,000명 이하였으며, 전원이 괄으로 이전할 리는 없는 일이었다. 또 군용도로 건설비 10억 달러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액을 늘리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군용도로는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제 건설될 가능성도 낮다(McCormack and Norimatsu, 2012: 104).

적어도 2014년까지 일본 본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속국주의와 미군우선주의를 무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 출범한 아베 내각의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안전보장정책의 개혁안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오키나와는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미군기지의 무거운 부담에 시달려 왔다. 경제, 정치, 도의 등 다양한 면에서 미

국의 신용이 흔들리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본 정부의 미국 지원과 종속 비용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은 오키나와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 VIII. 맺는말: 전망

최근대사에서 지금까지 과거 400년간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오키나와의 시점으로 새롭게 돌아켜보자. 1609년 류큐 정벌, 1875~1879년 류큐 처분, 1945년 잔혹한 오키나와 희생작전, 1945~1972년 오키나와 이양, 미군 점령기, 1972년 반환이라 할 수 없는 ‘오키나와 반환’, 1996년 그림의 떡이었던 후텐마 반환 결정, 그 후의 미군 재편, 기지 축소 선언 아래 더욱 증가하는 기지부담계획 등 항상 대국의 힘에 의한 정벌, 처분이 역사의 각 매듭처럼 보인다.

4세기 동안 일본에 ‘편입’되고, ‘할양’되고, 속임수에 놀아나고, 조종당하고, 차별당해 온 오키나와는 1996년을 기점으로 인내하고 따르는 희생자에서 저항운동의 행동가로 변모했다. 오키나와를 더욱 증강한 ‘전시국가’로 만드는 미·일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주체성을 가지고 일본의 속국성과 지역과 세계 질서가 걸려 있는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에 도전한 것이다.

헤노코 신기지 반대운동은 헤노코를 넘어 훨씬 큰 영향력을 갖는다. 최근의 지정학적 세계의 지각변동은 세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오키나와의 비군사화 운동은 지각변동의 커다란 부분이다.

오키나와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동아시아, 북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약 560년 전 만국진량의 종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일본, 중국,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되는 미래를 오키나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가라타니 고진은 현대의 위기, 대립은 과감하게 대담한 전망을 열 것이라고 했다. 21세기의 오키나와는 15~17세기의 류큐와 같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적 지위 탈환을 지향할 수도 있다.<sup>12</sup> 주체성과 자치권을 가지고 해법 제9조를 보유하

<sup>12</sup> 가라타니 고진, 「긴장의 동아시아로, 지금이야말로 보편적 의미」 마쓰시마 야스카츠의 류큐독

고 있는 공화국으로서 사방의 이웃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청일전쟁(1894) 이래 그림자를 드리워온 동아시아의 대립관계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노르웨이 평화학의 선구자인 요한 갈퉁(John Galtung)은 2020년경까지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체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그 중에서 오키나와는 공동체 주요시설(본부의 가능성도) 건설의 유력 후보지가 된다고 했다(『琉球新報』 2015/8/23; 『琉球新報』, 2015/8/25). 양쪽 모두 칸트의 유토피아적 ‘영속평화’의 ‘세계공화국’이 실현된다면 오키나와가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柄谷行人, 2015).

2015년 8~9월, 오키나와의 민의가 오키나와 현을 상대로 한 달이라는 긴 ‘집중협약’의 장에 일본 정부를 불러냈다. 협의하는 동안 오키나와 현지사는 매립 승인을 취소하는 행정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일본 정부는 기지건설 공사를 중지했다. 오키나와 이외의 지방자치 정부가 국가의 장래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걸린 중요사항을 일본 정부와 대화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협의는 아무런 성과도 이끌어내지 못했으나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오키나와가 좀 더 폭넓은 자치권을 가진 특별자치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현재 오키나와의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강하지 않지만 자치 확대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립론이 활기를 띠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국가 정부와 현이 전면적으로 대립하는 예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일본 본토 전체가 목소리를 내는 반대운동은 없었다. 아베 정부가 오키나와의 민의를 무시하고 오우라(大浦) 만을 매립해 신기지를 만드는 공사를 강행할 것인가, 아니면 건설계획을 철회할 것인가? 오나가 지사가 국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매립 승인을 취소하고 국가와 끝까지 투쟁할 것인가? 양보와 타협의 중간점이 없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국가권력 대 ‘움직이지 않는 돌’ 오키나와라는 대결의 귀추에 일본의 민주주의가 달려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헤노코 문제’는 과거 400년 역사의 집적으로 국가 구조에 깊게 기인한 문제가 표면화된 것으로 생각한다. 헤노코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파악하기 위해 다섯 가지 관점을 새롭게 제기한다.

1) 1609년과 1879년의 일본병합은 무력으로 강행한 것이었다. 먼저 류큐 왕국을 약체화하고, 그 다음에 폐절했다. 그러나 1854년의 류미수호조약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류큐는 주권을 가진 독립국이였다. 따라서 1969년의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51조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본다.

국가의 대표에게 정면으로 향한 행동 또는 위협을 통해 그 대표에 대한 강제에 의해 감행된 조약에 대한 국가의 기속적 동의표시는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琉球新報』 2015/2/16; Uemura, 2003).

일본에 의한 류큐나 조선병합은 협박과 폭력이 특징으로, 이 51조에 해당된다고 본다. 류큐 왕은 ‘퇴위’당하고 조선 왕비는 암살되었지만 동화정책과 저항 압살은 마찬가지다. 조선병합의 해석에 대해 최근 한·일 역사가들이 다수 참석해 논의한 결과, 병합은 무력에 의해 일본이 강요한 것으로 민비 살해(1895)에서 병합(1910)에 이르는 과정은 ‘불의부당’하며 ‘무효’라는 해석에 의견을 모았다.<sup>13</sup> 마찬가지로 1879년 무력에 의한 류큐 왕국 폐절은 ‘부당’하며 ‘무효’임이 분명하다.

오키나와의 한 단체는 일본 정부에게 류큐 왕국을 멸망하게 한 사죄와 배상, 또한 반환협정을 파기하고 정치적 지위를 포함한 오키나와 관계의 발본적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松島泰勝, 2010: 22).<sup>14</sup>

2) 동중국해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전제조건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호적, 협조적 관계 구축이 요구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로 나아가는

<sup>13</sup> 특히 다음을 참조. “Joint Statement by Japanese and Korean intellectuals on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nnexation of Korea,” May, August 2010, in Gavan McCormack, “Striving for “Normalization” – Korea-Japan Civic Cooperation and the Attempt to Resolve the “Comfort Women” problem,” *The Asia-Pacific Journal*, Vol. 13, Issue. 23, No. 2, June 15, 2015, <http://japanfocus.org/~Gavan-McCormack/4331/article.html/>(최종 검색일: 2015. 6. 30)

<sup>14</sup> 2010년 6월 독립선언은 ‘류큐자치공화국 연방’에 의해 제출되었고 아마미, 오키나와, 미야코, 야에야마에 의해 이리오모테 섬에서 발행되었다. Association for Comprehensive Studies for Independence of the Lew Chewans (ACSILs)을 참조. <http://www.acsils.org/gaiyou/>(최종 검색일 2015. 5. 29).

풍조임이 확연하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긴장으로 만연한 일본 정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더욱 더 넓은 범위의 관계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500년이나 우호관계에 있었던 중국과의 역사적 관계의 무게도 잊을 수는 없다. 오키나와 ‘독립’을 선택하자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2011년 어느 신문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독립 찬성이 5% 이하이고 나머지 60% 이상은 일본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sup>15</sup> 지금은 그때보다 독립 찬성과 숫자가 상당히 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독립 지향과의 앞에는 매우 성가신, 어쩌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를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중국과의 관계다.

국가 차원에서 중 · 일 대립이 이어지는 사이, 일본의 우익은 오키나와의 기지 반대운동에 친중 기미가 없는지, 중국 미디어에 류큐 부활을 지지하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지 등 예의 주시하고 있다. 그들은 물론 편향되어 있다. 류큐 · 오키나와가 독립을 되찾는다면 중국에 복속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중국이 류큐 · 오키나와 카드를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며 오키나와 지원을 표명한다면 오키나와의 독립과는 정말로 곤란하게 된다. 이 소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역사 분석에 찬성은 하지만 과거의 중국과 류큐는 책봉국과 조공국으로 대등하지는 않았다. 21세기 오키나와의 장래에 중국이 끼어들 권리는 없다. 오늘날 중국이 대일압력을 강화하려고 ‘오키나와 독립을 지지한다’는 협박조의 의견을 중국 유력 출판물에 게재하는 등의 오키나와 독립에 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sup>16</sup>

3) 유엔은 오키나와 · 류큐 주민을 2008년의 선주민 선언에 기술된 민족자결권을 가진 선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다(島袋純, 2015). 유엔인권위원회는 2014년 오키나와 문제를 다음과 같이 거론했다.

<sup>15</sup> 류큐 심포 폴(Ryukyuu shimpo poll)의 미주호 아오키(Mizuho Aoki)에 의하면 “오키나와인들은 분리독립안을 탐색하고 있다. 학자들은 사람들이 자부심, 정체성, 문화를 되찾을 필요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Japan Times, July 11, 2013).

<sup>16</sup> 하나의 대표적 의견은 다음과 같다. 「激活琉球问题, 为改变官方立场铺垫」(「류큐문제를 활성화하여 정부 입장의 바탕을 바꾸자」, Huanqiu shibao, May 11, 2013):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3-05/3924225.html>/(최종 검색일 2015. 5.20)

본 위원회는 독특한 민족성, 역사, 문화, 전통을 가진 오키나와·류큐 사람들을 일본 정부가 선주민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위원회는 사람의 권리옹호를 위해 류큐의 대표와 충분히 상담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을 우려한다. 또한, 소멸 위기에 있는 류큐의 언어를 보호, 유지하는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하는 바이다.<sup>17</sup>

유엔 특별조사관은 2015년 오키나와는 ‘차별의 희생자’로 오키나와 민족자결권 수립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琉球新報』 2015/8/17). 오키나와 현지사는 2015년 9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자기결정권과 인권을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총략) 자국민의 자유, 평등, 인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각국과 그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琉球新報』 2015/9/22)

민족이라는 관점은 어렵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선주민(원주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오키나와 측에서도 선주민이라고 주장하고 싶지 않은 사정이 있다. 선주민을 내세워 운동을 하면 뒤쳐져 있음을 자인하는 것과 같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Yokota, 2015: 55-73). 그렇지만 그와 같은 전략을 선택한다면 유엔은 흔쾌히 그들의 운동을 지지할 것이다. 선주민의 권리선언 제30조에 기지 반대를 강하게 지지하는 듯한 규정이 있다.

적절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간주되지만, 관계 있는 선주민의 자유 의지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선주민의 토지나 영토에서 군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4) 또한 육상전투의 법칙에 관한 헤이그조약(1907) 46조는 점령군이 사유지를 접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총검과 불도저’로 지주에게서 빼

<sup>17</sup> (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seventh to ninth periodic reports of Japan,” 29 August 2014, paragraph 21 “Situation of Ryukyu/Okinawa.” 또한 『琉球新報』 2014/8/22 참조.

얕은 토지 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다른 미군기지와 마찬가지로) 헤이그조약 위반이며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이 위법성과 기지의 위험성, 소음 등의 문제에서도 후텐마 기지는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5)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현 제3자위원회는, 2013년 12월 오키나와 현지사가 신기지 건설을 위해 오우라 만 매립 승인을 결정한 경위와 과정을 검증했다. 위원회는 많은 하자를 발견하고 그것이 몇 가지 법률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Kunitoshi, 2015; McCormack, 2015). 특히 매립 승인은 ‘국토이용상 적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라는 공유수면 매립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1개월간의 ‘집중협약’에서도 정부를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지사는 검증위원회 보고에 따라 매립 승인 취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취소되면 아베 정부의 정당성 간판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 오나가 지사는 9월 말 정식으로 취소 절차를 밟을 의향을 표명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베 정부가 공사를 중지할지, 정말로 오우라 만은 지켜질 수 있는나다. 스가(菅) 관방장관은 반대운동을 하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공사를 속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다. 공사는 계약이 끝나 재료는 반입되었고 작업 인원도 확보되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오타 마사히데(大田昌秀) 전임 지사는 일단 본체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중지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沖縄タイムス』 2015/9/15).

제네바의 유엔위원회에서, 일본의 법원에서, 길거리에서, 바다 위에서 세계의 여론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움직이든 아베는 정부의 의사를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한다. 최근 1년 아베 정부는 헌법 해석을 자신들의 구미에 맞춰 바꾸는 행위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앞으로도 법률을 무시하거나 또는 조작하는 것을 주저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1959년 스나가와(砂川) 판결 이래 안보동맹에 관한 사례는 특권적으로 헌법의 상위에 두는 것을 시인해 온 사법의 실태에 비추어본다면 재판에 맡긴다 해도 결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 세력 대 법률을 경시하는 아베 정부의 대립은 점점 심각해져갈 것이다.

오나가 지사는 일본 정부가 ‘부당’하고 ‘타락’하여 “오키나와의 민의는 일고조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지사가 취소를 선언해도 그것은 새로운 투쟁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헤노코 기지 반대운동은 오키나와 주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본 시민연합의 지지가 필요하다. 폭력과 강제로 점철된 400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평화적 수단으로 평화로운 섬을 회복하는 시민의 이야기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투고일: 2015년 11월 12일 | 심사일: 2016년 1월 11일 | 게재확정일: 2016년 1월 25일

## 참고문헌

- 伊波普猷. 1926. 『琉球古近記』. 東京: 刀江書院(Cited in Wikipedia).
- 植村秀明. 2012. “領土問題と歴史認識.” 第11回「歴史認識と東アジアの平和」フォーラム東京会議(2012年 11月 24~26日).
- 大山朝常. 1997. 『沖繩獨立宣言』. 東京: 現代書林.
- 柄谷行人. 2015. “反復強迫としての平和.” 『世界』 2015年 9月号, 31-46.
- 島袋純. 2015. “自己決定權とはどういう權利か”(第31回 水郷水都全国会議沖繩名護大会).
- 進藤栄一. 1979. “分割された領土.” 『世界』 1979年 4月号, 31-51.
- 高良倉吉. 1998. 『アジアの中の琉球王国』. 東京: 吉川弘文館.
- 寺島実郎. 2015. “能力のレッスン(156) 江戸期の琉球国と東アジア、そして沖繩の今—17世紀オランダからの視界(その28).” 『世界』 2015年 4月号, 33-39.
- 豊下橋彦. 1999. 『安保条約の成立~吉田外交と天皇外交』. 東京: 岩波書店.
- 波平恒男. 2014. 『近代東アジア史のなかの琉球併合—中華世界秩序から植民地帝国日本へ—』. 東京: 岩波書店.
- 西里喜行. 1987. “琉球救国運動と日本、清国.” 『沖繩文化研究』 13号, 25-106. 東京: 法政大学.
- 西里喜行. 1990. “洋務派外交と亡命琉球人(1): 琉球分島問題再考.” 『琉球大学教育学部紀要』 36号, 55-86. 琉球大学教育学部.
- . 2010. “東アジア史における琉球処分.” 『経済史研究』 13号, 67-129. 大阪: 大阪

経済大学.

ブック・アサヒ・コムウェブサイト「書評・コラムを読む」琉球独立論—琉球民族のマニフェスト[著]松島泰勝. <http://book.asahi.com/reviews/reviewer/2014092100006.html>(최종 검색일: 2015. 5. 24).

松島泰勝. 2010. “ユイマル琉球の自治—「琉球独立で平和の島へ」.” 『週刊金曜日』 808号, 22.

『琉球新報』. 2014年 2月 4日. “琉米,琉佛,琉蘭 条約の元本,里帰り、27日から展示.”

\_\_\_\_\_. 2014年 8月 22日. “辺野古移設,地元の民意尊重を,国連委員会が指摘.”

\_\_\_\_\_. 2015年 2月 16日. “「道標求めて」フォーラム 平和拠点化を提起,沖縄の自己決定権を議論.”

\_\_\_\_\_. 2015年 6月 11日.

\_\_\_\_\_. 2015年 8月 17日. “国連特別報告者沖縄県知事と会談, 基地集中は差別的.”

\_\_\_\_\_. 2015年 8月 23日. “首相は「積極的平和の言葉盗用」平和主義の父、ガルトゥング氏.”

\_\_\_\_\_. 2015年 8月 25日. “北東アジア共同体「心に響く案」追及したい.”

\_\_\_\_\_. 2015年 9月 22日. “翁長知事国連で演説.”

『朝日新聞』. 2010年 4月 16日.

『沖縄タイムス』. 2014年 9月 13日. “海兵隊の沖縄駐留「日本が要望」も元駐日米大使ウォルター・モンデールの口述記録.”

『沖縄タイムス』. 2015年 9月 15日. “「辺野古止めると言うだけでは…」大田昌秀元沖縄知事,米国とのパイプ構築を提言.”

『环球时报』. “激活琉球问题, 为改变官方立场铺垫.” May 11, 2013.

Dower, John W. and Gavan McCormack 共著. 明田川融・吉永ふさ子 訳. 2014. 『転換期の日本へ: 「ボックス・アメリカナ」か「ボックス・アジア」か』. 東京: NHK出版.

Kunitoshi, Sakurai. 2015. Translated by McCormack, Gavan. “To Whom does the Sea Belong? Questions Posed by the Henoko Assessment.” *The Asia-Pacific Journal* July 20, 2015. <http://www.japanfocus.org/-Gavan-McCormack/4346/article.html>(최종 검색일: 2015.7.25).

McCormack, Gavan. 2015. “Introduction: The Experts Report and the Future of Okinawa.” *The Asia-Pacific Journal* 13(29), 1-5. <http://www.japanfocus.org/-Gavan-McCormack/4344/article.html>(최종 검색일: 2015. 7. 25).

- McCormack, Gavan and Oka Satoko Norimatsu. 2012. *Resistant Islands: Okinawa Confronts Japan and the United States*. Plymouth: Rowman and Littlefield.
- Perlez, Jane. 2013. "Calls Grow in China to Press Claim for Okinawa." *New York Times*, Jun 13.
- Smits, Gregory. 1999. *Visions of Ryukyu: Identity and Ideology in Early Modern Thought and Politic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uganuma, Unryu. 2000. *Sovereign Rights and Territorial Space in Sino-Japanese Relations: Irredentism and the Diaoyu/Senkaku Island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Tsuyoshi, Arakaki. 2015. "Two Historical Papers Reveal Divide and Conquer Strategies by Meiji Government after Ryukyu Kingdom Annexation." *Ryukyu shimpo*, June 11 2015.
- Uemura, Hideaki. 2003. "The Colonial Annexation of Okinawa and the Logic of International Law: The Formation of an 'Indigenous People' in East Asia." *Japanese Studies* 23(2), 213-222.
- Yokota, Ryan Masaaki. 2015. "The Okinawan (Uchinānchu) Indigenous Move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ntional/International Action." *Amerasia Journal* 41(1), 55-73.
- The Guardian*. "Chinese Academics in Call to Review Japanese Sovereignty over Okinawa." May 14, 2013.
- The Japan Times*. "Okinawans Explore Secession Option." Jun 11, 2013.

---

**Abstract**

## 400 Year History of Ryukyu/Okinawa and the East China Sea: A Bird's Eye View

Gavan McComack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

Active cooperation among all parties surrounding the East China Sea is necessary for peace and prosperity of East Asia. This paper looks at 400 years of Okinawa's history with this in mind. The "Okinawa Problem" is known to have its roots in the insistence of the U.S. and the Japanese government on installing new facilities for the U.S. Marine Corps on the north end of the island, but hidden deeper within lies a long historical legacy of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 independent kingdom since the late 14th century, the Ryukyu islands were subdued by outside powers in the 17th century and forced to serve both the Tokugawa shogunate and Beijing. In early 19th century the Meiji government deposed the kingdom and annexed the islands as soon as the new regime was stabilized. The Okinawans were forced to denounce their identity and fully identify themselves as "Japanese," and also to disown their unique language and culture.

In May of 1947, after the war ended in which a devastating battle was fought on the island, the Japanese Emperor preferred to have Okinawa ruled under long-term U.S. military supervision. The residents of Okinawa hoped that when the island is returned to Japan after being used as a "wartime" state under U.S. military administration, it would be freed from American occupation to become a peaceful and non-militarized

island under the Japanese constitution. However, even as the island's administration was transferred to Japan in 1972 with a large payment made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United States, Japan did not want the military bases to be returned.

Since then the bases have remained for over 20 years, well past the end of the Cold War, and now both the American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actually demanding an expansion of the bases, greatly disappointing the islands' residents. Okinawa's geopolitical situation provides ample opportunity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rapidly changing East Asian community. Through the opposition movement against Henoko Base and over 400 years of violence and oppression, the story of a citizenry that seeks restoration of a peaceful home via peaceful means continues today.

**Keywords |** Okinawa, East China Sea, Ryukyu islands, military base, opposition movement against Henoko base